

제1주제

신도안 건도사업에 대한 역사적 검토

- 목 차 -

1. 머리말
2. 신도안 천도론의 역사적 배경
3. 신도안 건도 사업의 추진과정
4. 신도안 천도론의 정치적 성격
5. 한말의 천도론과 신도안
6. 맺는말

윤 용 혁
(공주대학교)

1. 머리말

- 1392년 조선 건국과 함께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였던 신도 천도문제는 태조 3년(1394) 한양으로의 천도에 의하여 일단 확정을 보았다. 그러나 정종대의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왕실 조정이 개경에 돌아옴으로써 한동안 한양 定都는 난관에 봉착한 듯 하였지만 1405년(태종 5) 개성으로부터의 재천도가 이루어졌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이루어진 한양의 천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조선 건국에 의한 한양 천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한때 계룡산 기슭의 신도안(현재의 계룡시) 지역이 신왕조의 천도지로 지정되어 일시 기초적 단계의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 신도안 천도계획은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2년(1393)의 일이다. 상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태조 이성계가 직접 현지를 답사하였고, 당시에 조성된 건축재(석재)의 일부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 또한 신도안은 풍수도참과 관련한 많은 화제와 관심을 오랫동안 생산하였다.¹⁾
- 이같은 신도안 천도 계획의 역사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사 내용을 지역의 문화적 토대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당시 신도안 천도계획의 역사적 배경과 사업의 경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제공하려고 한다.
- 본고에서는 특히 두 가지 점을 중요한 줄거리로 문제를 정리해가고자 한다. 첫째, 1393년 신도안 천도문제는 신도안의 천도지로서의 거론에

1) 계룡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 개황은 윤용혁 「계룡산의 문화사적 성격」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신도안의 풍수도참적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종수 「계룡산의 도참·풍수지리적 고찰」 『계룡산지』 충청남도, 1994 참고.

서부터 공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종 태조의 주도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1393년 계룡산 신도안의 천도 논쟁은 외면상 풍수적 적합성이 핵심이었다. 천도지로 선정된 명분도 풍수문제였고, 천도지로서의 적합성이 부정된 것은 풍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 신도안의 풍수논의는 본질이 감추어진 명분상의 논란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신도안의 천도계획이 건국 초의 천도 논의 과정에서 돌출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계룡산 천도론 등장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이 한양에의 천도를 촉진하는 실제적 기능을 하였다는 점을 본고에서 강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룡산 신도안 천도 계획은 고려 말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천도론의 결과이며, 동시에 한양천도로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전후 맥락을 연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2. 신도안 천도론의 역사적 배경

- 조선 건국에 의한 한양에의 천도는 계룡산 신도 계획을 거쳐 태조 3년(1394) 이루어졌지만, 개경으로부터의 천도 논의는 고려 말, 특히 공민왕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양에의 천도 혹은 계룡산 신도 계획은 이같은 고려 말부터의 천도론이 그 역사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계룡산 천도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천도론의 향배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 공민왕대의 천도론은 한양(남경), 백악, 강화, 평양, 충주 등이 거론되었으며 그중 백악으로는 실제 일시적 천도가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 제기된 천도론은 무엇보다 왜구의 침입이 그 직접적 요인이었다. 기

2) 종래의 연구에서 여말의 천도론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지연이 지적한 바 있다. 장지연 「여말선초 천도 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2003, pp.1-3

록상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은 도합 471건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침입은 시기적으로는 우왕대, 지역적으로는 영, 호남과 충청, 경기의 연안 일대가 특히 심하였다. 이들 왜구의 침입은 심지어 수도 개경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우왕 원년(1375) 9월 덕적도와 자연도예의 왜구 집결로 개경에 비상이 걸렸고, 1377년(우왕 3)에는 왜구가 강화를 침입하여 최영 등으로 이를 방어토록 하였으며, 1383년(우왕 9) 9월에도 왜구로 인해 개경에 계엄이 내려졌다.

- 우왕은 즉위 초부터 천도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 결과 우왕 3년(1377)에는 철원, 이듬해 1378년에는 한양을 신도로 정하고 左蘇造咸都監을 설치하는 등 한양에서는 일시 공사까지 착수하였다. 이후에도 1381년(우왕 7) 한양 천도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듬해 138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왕이 한양에 거처하기도 하고 건국 직전인 1390년(공양왕 2)에는 9월에 개경으로 천도하여 이듬해 2월 개경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³⁾ 한편 우왕 14년()에는 지금의 북한산성에 해당하는 중흥산성을 수축함으로써 우왕대 천도지로서의 한양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입증하고 있다.
- 우왕대 이후 천도지로서의 한양에 대한 관심은 왜구에 대한 대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된 천도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면 한양이나 개경이 모두 해안에서 가깝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왕대 이후 한양천도론이 부상한 것은 고려 말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양 천도 문제는 이미 고려 말에 정치적 현안의 하나로 제기되어 있었다.

3) 남지대 「서울, 어떻게 ‘서울’이 되었나」 『역사비평』 1994년 봄, p.81 및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과정과 수도 방위」 『한국중세의 수도와 천도(한국사연구회 2003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pp.96-98

<표 1> 고려 말(공민왕-공양왕)의 천도론4)

연월	천도지	移御 여부	내 용	비 고
1356(공민 5) 6월	한양	×	보우의 건의	
1360(공민 9) 11월	백악	○	7월 논의, 11월 移御 이듬해 3월 환어	1359년 말부터 홍건적 침입 1360년 윤5월 왜구 강화 침입
1362(공민 11) 8월	강화	×		2차 홍건적 침입
1367(공민 16) 4월	평양	×	신돈 건의	1365년 왜구 교동 강화 침입
1369(공민 18) 7월	평양 충주	×	신돈과 관련, 3소 연관	1371년 왜구 양천 침입 1372년 왜구 한양 침입
1375(우왕1) 8월	×	×	최영 등의 반대로 중지	
1377(우왕 3) 5월	철원	×	최영 등의 반대로 중지	1376년 9월 해운 금지 10월 왜구 강화부 침입
1377(우왕 3) 7월	연주	×	5逆의 땅이라 하여 중지	
1378(우왕 4) 1월	백악	×	9월 중지	
1378(우왕 4) 11월	北蘇	×	교통, 조운을 이유로 중지	
1378(우왕 4) 12월	左蘇 (백악)	×	좌소조성도감 설치, 이듬해 2월 중단	
1379(우왕 5) 10월	회암	×	권중화 등 파견 검토	
1381(우왕 7) 8월	한양	×	서운관의 건의	
1382(우왕 8) 2월	한양	×	서운관 추천, 이인임 반대	
1382(우왕 8) 8월	한양	○	9월 천도, 이듬해 2월 환도	
1387(우왕 13) 11월	한양	△	이듬해 1월, 한양 중흥산성 수축, 3월(1388) 세자왕비를 한양산성 으로 옮겼다가 5월 돌아오게함	1388년 5월 위화도 화군 6월 창왕 즉위
1390(공양 2) 9월	한양	○	9월 천도, 이듬해 2월 환도	

- 이상의 경과에서 보면 고려 말의 천도논의는 왜구 침입을 배경으로 제기되어 점차 정치적 요구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으며, 그 대상지는 거의 한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의 천도론은 이같은 고려 말 이래의 천도논의의 연장이며 동시에 신도로서 가장 유력한 대상지는 한양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고려 말 한양 천도론의 명분은 송도의 지기 쇠왕설에 근거한다. “마땅히 한양으로 행행할 것은 송도의 지덕을 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견해이다.⁵⁾ 명백한 ‘천도’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국왕의 장기적 한양

4) 이 표는 장지연의 「여말선초 천도 논의에 대하여」 pp.44-45의 표를 재정리한 것임

순주는 한양에의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개경으로부터 한양으로의 천도를 우려하고 그에 반대하는 논의가 쇄도하였다. 박의중이 천도를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일으키는 폐단”으로 지적하고⁶⁾, 尹會宗이 “국가의 運祚가 장구하게 되는 데는 임금이 덕을 쌓고 인을 모아 나라의 근본을 기르는데 있을 뿐인데 어찌 도성 지세의 旺氣를 믿으십니까”⁷⁾, “신우가 도참을 믿고 남경에 도읍을 옮겼으나 어떤 나라가 조공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까”라는 공양왕대 강준백의 반대론이 그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여실히 전한다.⁸⁾

- 천도를 조속 확정하려는 입장에서 천도의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거론된 것이 송도의 지기쇠왕설이다. 이것은 천도의 불가피성, 한양 천도에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데서 주로 동원된 논리였고, 결과적으로는 새 천도지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도 풍수적 논의가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 천도문제에 풍수문제는 핵심적 논의라기보다는 역성혁명의 정치적 본질을 호도한 데서 야기된 명분 찾기였다는 점이다.
- 태조의 천도 의지에 대해서는 조정 대신 대부분의 반대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국공신 정도전조차 천도에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정도전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지리의 성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풍수설에 입각한 천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만일 천도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국초의 시기보다는 “천시와 인사와 천도지를 두루 잘 검토하고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이었다.⁹⁾ 즉 정도전은 국초에는 국가의 체제 정비와 민력의 안정에 치중하고, 천도 문제는 추후 추진 여부를 논의할 문제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¹⁰⁾ 정도전의 천도에

5) 『고려사』 112, 朴宜中傳, 개경의 지기쇠왕설은 이미 보우에 의하여 제기되어 공민왕 5년(1356)의 한양 천도 논의의 근거가 되었다.

6) 『고려사』 112, 朴宜中傳

7) 『고려사』 120, 윤소종전 부 윤회중

8) 『고려사』 117, 姜淮伯傳

9) 『태조실록』 6, 태조 3년 8월 기묘

대한 이같은 견해는 당시 상하의 일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¹¹⁾,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 태조와는 정책적 견해차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반면 태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이를 통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세력이 공존하였으며¹²⁾, 태조는 공신들의 반대 에 대응하여 이들을 활용하여 천도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³⁾

- 즉위 직후 태조는 한양에의 선천도 후건설을 계획 하였다. 이 때문에 남경 이궁의 궁궐을 먼저 수리토록 지시한 것인데 이같은 태조의 한양 천도계획에 대해서는 9월 3일 대신들의 공식적 의견이 태조에게 전달되었다. 시중 배극렴, 조준 등이 전달한 의견은 도읍 건설이 이루어진 연후에 천천히 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태조로서는 이러한 의견이 천도 자체를 저지하려는 도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점에서 태조와 당시 정부 대신들 간에는 천도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 대신의 정리된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건국 직후 태조의 한양 천도 지시는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¹⁵⁾

3. 신도안 건도 사업의 추진과정

- 1392년 7월 17일, 즉위한 태조 이성계는 즉위 직후 바로 천도 문제를 공식 거론하였다.이에 의하여 처음 천도지로 물망에 오른 것은 한양이었다. 즉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8월 13일 한양에의 移都를 지시

10) 이원명 「한양천도 배경에 관한 연구」 『향토 서울』 42, 1984, pp.139-141

11) 건국 직후인 1392년 한양 천도 논의도 공신인 배극렴· 조준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장지연, 앞의 논문,, p.23 참조.

12)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서는 河崙, 權仲和, 權近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색 계열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걸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지연, 앞의 논문 p.25 참조.

13) 조선 초의 정치적 실권에 대해서는 개국공신과 이들이 중심이 된 도평의사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오히려 정국의 주도권을 태조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안되어 있다. 최승희 「조선 태조의 왕권과 정치운영」 『진단학보』 64, 1987 참조.

14) 『태조실록』 2, 태조 원년 9월 기해

15) 원영환은 태조 원년의 한양 천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서 신권이 승리한 것으로이라고 하였다. 원영환 「한양천도와 수도 건설고」 『향토서울』 45, 1988, p.10

한 것이 그것이다. 태조는 15일 삼사우복야 李恬(념)을 즉각 한양에 파견하여 기왕의 궁궐(남경 이궁)을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¹⁶⁾ 한양은 이미 고려시대에 개경, 서경과 함께 고려 3경의 하나로서 남경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말에도 여러 번 창궁 巡駐를 시도한 곳이기도 하다.

- 그러나 이듬해 1393년 정월 태조는 계룡산에 행차할 것을 공포하고 정월 19일 군신을 거느리고 개성을 출발하였다. 영삼사사 安宗源, 우시중 金士衡, 참찬문하부사 李之蘭, 판중추원사 南閭 등이 시종하였다. 도중 양주 회암사에서 무학대사를 동반한 태조의 갑작스러운 행행이 신왕조의 천도지 확정을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도안이 천도 후보지로 부각된 전말에 대해서는 한양 천도가 좌절된 얼마 후인 태조 원년(1392) 11월 27일(갑진), ‘왕실 안태의 땅’을 찾기 위하여 ‘胎室證考使’라는 직책으로 ‘양광·경상·전라도에 파견’하였다는 정당문학 權仲和가 주목된다.¹⁷⁾ 그는 한 달여 만인 1393년 정월 2일 태조에게 왕실 안태지로서 전라도 진동(금산 군내)의 산수 형세도를 바쳤는데, 이때 ‘양광도 계룡산 도읍도’를 함께 올렸다는 것이다.¹⁸⁾
- 이태조가 계룡산 기슭에 도착한 것이 2월 8일, 다음날(9일) 그는 군신을 이끌고 신도 후보지의 산수 형세를 직접 살피고 호종하던 成石璘, 김주 등에게 교통의 便否, 도로의 險易를, 그리고 義安伯 和, 南閭에게는 성곽의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2월 10일 서운관원과 풍수가들로 하여금 권중화가 올린 신도의 종묘사직, 궁전, 朝市의 형세도에 의하여 그 실제 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였다. 태조는 중앙의 높은 곳(高阜)에 올라 주변 형세를 관찰하는 등 5일 동안 머물렀으며 귀경 후에도 상의문하부사 金湊, 동지중추 朴永忠, 전 밀직 崔七夕 등을 현지에 잔류케 하여 신도 경영을 감독케 하였다. 이로써 볼 때 계룡산

16) 『태조실록』 1, 태조 원년 8월 임술 및 갑자

17) 권중화는 우왕 때에도 천도와 관련 北蘇 궁궐의 舊基를 현장 조사한 일이 있고, 원래 “의약과 지리와 卜筮”에 정통하였던 인물이다.(『태종실록』 8년 11월)

18) 『태조실록』 3, 태조 2년 정월 무신

신도 건설은 매우 급하게 결정되고 착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월 신도의 기내에 속할 81개 지역이 정해지고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노동력은 농기를 고려하여 일단 귀향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공사가 재개된 것은 추수가 끝나는 9월 이후였다. 9월에 경상 전라도의 안렴사에 명하여 신도 공사를 위한 역도 징발과 승도의 모집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사는 그해 12월 1일자 돌연 중지의 명이 내린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이것은 경기도 도관찰사 河崙의 반대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하륜은 풍수지리의 관점을 거론하여 신도안이 도읍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도읍은 모름지기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나 계룡산은 땅의 남쪽에 치우쳐 있고 동서남북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선친을 장사지낼 때 풍수의 여러 책을 조사해본 바 있는데, 지금 듣기로 계룡의 땅은, 산은 乾(서북방)에서 오고 水는 巽(손, 동남방)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송대의 풍수가 胡舜臣(申)이 말한 “물이 長生을 부수는 쇠퇴의 땅”(水破長生 衰敗立至之地)에 해당하므로 도읍을 세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태조실록』 2년 12월 임신)

- 요컨대 하륜의 논리는 계룡산이 지리적으로 남방에 치우쳐 있는 점과 풍수적으로도 도읍으로서의 길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태조는 이태조는 호순신의 풍수설을 증험하기 위하여 前朝의 諸山陵의 길흉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奉常寺의 諸山陵形止案에 의거 검토한바 길흉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¹⁹⁾ 하륜은 정도전 등 조선왕조 개창의 중심세력과 정치적 노선이 달랐다. 이들의 혁명적 왕조 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²⁰⁾ 그러나 신왕조 성립 이후 참여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도전 등의 ‘개국주도파’에 대하여

19) 이태조의 신도안 건도 사정에 대해서는 이병도 「조선 초기의 건도 문제」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pp.395-401을 많이 참고하였음.

20) 이한수 「조선초 ‘개국주도파’와 ‘개국후 참여파’의 정치사상적 갈등」 『청계논총』 2, 2000, pp.124-126

‘개국후 참여파’로 분류된다. 하륜은 이후 무악 천도설을 주장하는 등 개국주도파와 의견을 대립하며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여 갔으며 태조 7년(1398) 정도전 등 개국파를 제거하는 ‘왕자의 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 신도안이 교통과 조운 등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천도지로서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풍수적 길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풍수론은 사실 이성계에 의하여 마련된 신도안 천도론의 합리화를 위하여 동원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신도안 천도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신도안에 대한 새로운 풍수적 해석은 이를 번복하는 수단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²¹⁾
- 1393년(태조 2)의 신도안 천도 공사는 그 상세한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지나치게 조급한 공사 결정, 그리고 허망한 공사 중단 결정이 그것이다. 적어도 신도안 천도 공사 결정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생략 되었다는 점에서 조급한 정책 결정과 무리한 추진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 혼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필자는 무엇보다 신도안 천도계획이 처음부터 이태조의 단독적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서 초래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신도안을 천도 후보지로 처음 안중에 둔 것도 태실증고사 권중화가 아니라, 이성계 자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신도안이 천도 후보지로 부각된 전말에 대해서는 한양 천도가 좌절된 얼마 후인 태조 원년(1392) 11월 27일(갑진), ‘왕실 안태의 땅’을 찾기 위하여 ‘胎室證考使’라는 직책으로 ‘양광·경상·전라도에 파견’하였다는 정당문학 권중화가 주목된다.²²⁾ 그는 한 달여 만인 1393년 정월 2일 태조에게 왕실 안태지로서 전라도 진동(금산 군내)의 산수 형세도를 바쳤는데, 이때 ‘양광도 계룡산 도읍도’를 함께 올렸다는 것이

21) 여말선초 일련의 천도논의에 대하여 김창현은 천도론이 “풍수도참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대개 대외관계를 포함한 정치현실의 반영”이라 하였다.(김창현 「고려 말 천도론과 한양」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p.231

22) 권중화는 우왕 때에도 천도와 관련 北蘇 궁궐의 舊基를 현장 조사한 일이 있고, 원래 “의약과 지리와 卜筮”에 정통하였던 인물이다.(『태종실록』 8년 11월)

다.²³⁾

- 권중화는 불과 한 달여 만인 이듬해 정초(정월 2일) 금강권에 해당하며 태조의 본관지인 전주와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계룡산에서 천도지를 구하였으며, 이미 이때 ‘계룡산 도읍도’를 작성하여 올릴 정도로 신속한 업무 수행을 하였다. 이로써 보면 실제 안태지 내지 천도 후보지의 검토지역도 전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조의 본관지인 전주로부터 금강, 혹은 계룡산 일대의 제한된 지역이었던 아닌가 생각된다. 더 나아가 신도안에의 천도 계획이 권중화의 건의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태조의 계획적인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불과 한 달 동안에 남한지역을 두루 검토하여 안태지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신도안을 천도 후보지까지 추천한다는 것이 우선 일정상 꽤 무리하다. 거기에 함께 올렸다는 ‘계룡산의 도읍도’란 구체적인 천도 설계를 담는 것이어서 왕명에 의한 사전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보고라는 점 때문이다.²⁴⁾
- 정리한다면, 이태조는 한양천도 시도가 좌절된 후 계룡산을 후보지로 내심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검토를 권중화에게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중화에 의하여 계룡산의 신도안에 대한 검토안이 보고되자 불과 2주만에 직접 계룡산에의 현지 조사에 나선 것도 권중화의 ‘태실증고사’ 파견과 신도안 계획이 사전에 맞물려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신도안 후보지 문제와 관련하여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계룡산에서 기도하였다는 풍부한 구전이 주목된다. 계룡산에서의 기도로 결국 신왕조 개창에 성공하였다는 것인데, 그가 즉위 이전 기도한 장소는 구체적으로는 암용추 부근의 동굴이었다 하며, 이 때문에 여기에는 그후 이태조의 초상까지 모시고 영험 있는 기도처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⁵⁾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계룡산은 이태조의 기도

23) 『태조실록』 3, 태조 2년 정월 무신

24) 태조의 신도안에 대한 관심은 적당한 태실지를 찾던 권중화의 건의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그렇게 인식되어왔다.(이병도 「조선초기의 도참」 『고려시대의 연구』 p.396) 그러나 당시 천도에 대한 극히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여 있던 시점에, 그것도 개경이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개인적 판단으로 왕에게 천도지로 추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극히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처에 대한 전설이 전하는데²⁵⁾ 필자의 경우도 이태조의 즉위 전 계룡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구전을 1980년 경, 개발 이전의 신도안 마을에서 직접 청취한 바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태조는 계룡산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양 천도가 좌절되자 전혀 새로운 후보지로서 계룡산을 검토하였고, 그것이 바로 권중화의 파견으로부터 진행된 일련의 천도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태조는 무엇 때문에 천도문제에 그렇게 집착하고 천도를 서둘렀는가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4. 신도안 천도론의 정치적 성격

- 태조 2년(1393) 신도안 천도 결정은 이태조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즉위 초 태조가 가장 집착한 문제의 하나가 천도 문제였다. 고려라는 국호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즉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8월 13일 한양에의 천도를 직접 지시하고 남경의 이궁을 수리토록 조치하였던 데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 천도에 대한 태조의 단호한 입장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도안이 취소된 다음 무악 천도론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천도 반대론자 劉旱雨 등의 반대에 그 대안을 추궁하면서 태조는 “너희들은 송도의 지기가 쇠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느냐”고 몰아세운 끝에 가까운 곳에 천도지가 없으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읍지 중에 길지가 있는가 검

25) 이에 대해서는 成萬秀(1907-1965)의 계룡산 여행기(1860.7.28)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암용추 三神堂 石室을 살피는데 통로를 幕으로 가려 동굴 속에 달팽이 집 같이 작은 집들이 다 도인들이 차지했다. 앞 봉우리에 帝釋寺가 있고 굴 안에 태조의 초상이 있으니, 곧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기도를 올린 곳이다.”(『海琴先生文集』 2, 충남일기) 이글의 번역 및 원문은 추만호 『동학사』 우리문화연구원, 1999, pp307-309에서 참고함.

26) 조재훈 「계룡산의 전설」에 실린 ‘할머니와 이성계(신원사 전설)’ 전설도 그 한 예인데, 이 전설은 야망을 품은 이태조가 무학대사의 말을 듣고 개국 이전 계룡산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도 중에 꿈에 이태조 자신이 장작개비 셋을 끓여지고 있는데 신발 바닥은 뒤축이 떨어져 나가 있고 앞에 있는 병의 목을 잡았더니 마개가 뚝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할머니의 해몽은, 장작개비 셋을 끓여진 것은 장차 임금의 위를 오른 것을 상징하고 신발 뒤축이 떨어져나간 것은 임금의 신발을 뜻하는 것이고 병마개가 떨어진 것은 대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라는 계시라는 것이다. (『계룡산지』 충청남도, 1994, pp.995-998)

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는 데서 잘 표출되고 있다.²⁷⁾ 고려 이전, 고대의 서울이라면 3국이 분립되어 대치된 시기여서 도읍이 모두 국토의 중심부에서 모두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통일 조선왕조의 도읍으로서는 지리적으로 부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무리한 주문을 서슴치 않는 것은 태조의 천도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신왕조의 건국에도 불구하고 천도 문제는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국 세력에 있어서도 천도 문제는 현안에서 벗어나 있었다. 계룡산 신도안이 새로운 천도 후보지로 부상하고 1393년 정월 태조가 현지 實査를 위하여 車駕를 움직이자 도평의사사에서는 지중 추원사 鄭曜를 보내 顯妃의 病報와 황해도 평주, 봉주의 초적에 대한 견을 구실로 천도 계획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때 태조는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와 대족들이 모두 싫어하는 바이므로, (病報와 초적을) 구실로 삼아 이(천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제상은 송경에 오랫동안 살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니, 천도가 어찌 그들의 본 뜻이겠는가”(『태조실록』 2, 태조 2년 2월 병자)

하면서 천도를 저지하려는 대신들의 부정적 분위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계룡산 신도안의 풍수적 적합성 이전에 우선 태조가 천도의 조속 추진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태조가 건국 초 특별히 천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집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기왕에 일정한 논의가 있었다. 일찍이 이병도 선생은 지덕이 쇠퇴하였다는 개경을 속히 피하려고 하는 태조의 “미신적 사상, 즉 음양지리(풍수)적 사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27) 『태조실록』 6, 태조 3년 8월 무인

꼭은 바 있다.²⁸⁾ 김용국은 신왕조의 출범에 부응하는 심기 일전의 한 계기 조성, 개성의 지기 쇠퇴설, 그리고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야기된 잔혹 행위에 대한 불안감의 청산을 위하여 천도를 고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이에 대하여 이원명은 천도 동기에 있어서 풍수도참 문제를 중시하는 견해를 부정하고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중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이유는 여말 정치권력의 탈취 과정에서 야기된 폐위와 살해 등의 가혹 행위로 인한 가책 및 왕씨를 중심으로 한 구가세족의 항거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³⁰⁾ 한편 원영환은 개경에 기반이 없는 이태조의 정치적 불안, 반대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한 데 대한 심리적 불안, 송도의 지기가 쇠퇴했다는 지리도참설, 신왕조 개창에 따른 새 도읍 건설의 당위론, 천도에 의한 신왕조 민심의 일신 등 여러 가지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³¹⁾ 이태진은 태조의 조급한 천도책이 자신이 ‘폐군신’의 정변을 일으킨 송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 하였다. 공양왕 2년의 한양 천도 계획이 “천도하지 않으면 정변이 일어난다”는 참설 때문이었고, 그것을 직접 실현한 장본인으로서 태조는 개경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다는 것이다.³²⁾ 다소의 정치적 논의가 검토되어 왔지만 송도의 지기쇠왕설 같은 풍수 도참적 관점을 조급한 천도의 중요한 계기로 보는 것은 일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³³⁾

- 이상 소개한 태조의 천도 집착 이유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개경의 지기 쇠퇴와 같은 풍수도참론의 견해는 천

28) 이병도 「조선 초기의 건도 문제」 『고려시대의 연구』 1948, p.394

29) 김용국 「서울 奠都(전도)의 동기와 전말」 『향토서울』 1, 1957, pp.52-57

30) 이원명 「한양천도 배경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42, 1984, pp.130-135

31) 원영환 「한양천도와 수도건설고」 『향토서울』 45, 1988, p.9-13

32) 이원명 「한양천도 배경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42, 1984, pp.130-135 ; 이태진 「한양천도와 풍수설의 폐퇴」 『한국사시민강좌』 14, 1994, pp.55-56 참조.

33) 특히 계룡산에 대해 풍수 도참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이같은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가령 정종수 「계룡산의 도참 · 풍수지리적 고찰」 (『계룡산지』 충청남도, 1994)에서 신도안 ‘천도의 동기’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것은 어떤 사정보다도 음양 풍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경의 지기쇠왕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p.550), 신도안 천도 계획의 중단이 지리보다는 ‘풍수상의 결함’에 비중이 실려 있었다(p.545)고 한 경우도 그 예이다.

도책의 추진에 하나의 배경은 되었겠지만 핵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 정부 대신과 이태조의 천도에 대한 입장과 견해가 상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천도 문제가 풍수적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사안임을 입증한다.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자행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초래하였을 심리적 부담이라는 것도 중요한 천도 추진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권력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유혈적 투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조선왕조의 건국은 왕조 교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동에 비한다면 비교적 '평화적인' 권력 변동의 과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 왕씨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도 한양천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다. 자신이 '폐군신'의 정변을 일으킨 송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도 천도에 조급증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 태조의 천도에 대한 조급증은 무엇보다 자신이 중심에 있는 '역성혁명'의 정당성 확보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권력을 장악하고 선양의 형식을 밟아 왕위에 즉위하였지만 그것으로 天命에 의한 왕조 교체라는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태조 이성계는 바로 그 정당성의 확보를 천도라는 작업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즉 태조에 있어서 천도야말로 역성혁명의 완성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신왕조의 시스템 구축에 몰두해 있는 공신세력의 입장과는 달리 천도야말로 태조에 있어서 절대 절명의 우선적인 과제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부대신들이 천도를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태조는 이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 태조가 천도문제를 역성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다. 태조 2년 계룡산 신도안에 거동할 때 군신들의 반발에 직면한 태조는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은 군주(易姓受命之王)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³⁴⁾라고 하여 천

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못 박고 있다. 태조의 계룡산 행차를 수행하였던 권근의 노래는 이같은 태조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왕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도읍 옮겨 긴 명을 더 잡는데

처음 할 일 이거라고 정승와서 살펴보니 계룡산에 터가 있네

산천이 웅위하여 좋은 기운 뭉쳐 있고 풍수도 절승하여 도참과 틀림 없네

(권근 『양촌집』 1, '進風謠')³⁵⁾

- 태조는 자신에 의한 '폐군신'의 행위가 천명에 의한 역성혁명의 과정이며 그 점을 천도라는 작업을 통하여 완성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한양에의 천도 방향이 돌연 계룡산 도읍지로 전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이태진은 한양이 “자신이 폐위시킨 왕이 가고자 했던 곳이므로 썩 내키는 곳은 아니었다”고 하였다.³⁶⁾ 한양 천도가 벽에 부딪치자 쉽게 이를 포기하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태조 3년 계룡산 이후 무악이 새로운 천도지로 거론되었을 때 천도에 대한 이태조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도읍을 옮길 것이다. 만일 가까운 곳에 길지가 없으면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의 도읍지도 역시 길지일 것이니 마땅히 합의하여 보고하라”
(『태조실록』 6, 태조 3년 8월 무인)

-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도지로서 태조가 반드시 한양이나 그 부근의 땅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의 중심부에서 다소 지리적으로 치우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34) 『태조실록』 2, 태조 2년 2월 병자

35) 장지연, 「여말선초의 천도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2003, p.17에서 재인용

36) 이태진, 앞의 논문 pp.55-56

있으며, 동시에 신왕조의 건국을 삼국시대에 비견하는 한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같은 건국 인식이 태조로 하여금 천도의 대상지를 넓은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강 유역 인근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지는 금강권의 충청지역으로 초점이 옮기게 된다. 계룡산은 과거 백제의 도읍이었던 웅진, 부여와 지척의 지점이며, 외적 방어상의 이점, 본관지 전주와의 근접성 등 몇 가지 긍정적인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신도안 천도계획의 반복에 있어서도 풍수적 논의가 비등하였지만, 신도안 건설 공사의 중지도 반드시 풍수의 부적합성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외형상으로는 풍수론에 근거한 하륜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실은 풍수적 문제보다도 조정 대신의 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정책 반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태조는 하륜의 반대 건의 이전에 신도안 천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그 근거로 하륜의 반대 수 개 월 전인 태조 2년 8월 1일에 태조가 개경의 성곽을 수축하고 직접 현지 시찰까지 나선 점, 10월 공사가 실제로 총력을 기울인 작업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면서, 하륜의 신도안 천도 반대는 “태조에 의하여 언질을 받았거나”, 최소한 태조의 미온적 의중을 파악한 데서 가능하였다는 것이다.³⁷⁾
- 조정대신의 여론은 신도안 천도에 부정적이었는데, 개성에서 지리적 으로 지나치게 멀다는 점도 한 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신도안의 경우 교통의 편의성 및 조운로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당시 도움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점임이 분명하다. 즉 태조의 ‘과육’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왕조의 도움으로서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점이 천도지로서의 신도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다.³⁸⁾ 『신증동국여지

37) 원영환 「한양천도와 수도 건설고」 『향토서울』 45, 1988, pp.16-17

38) 신도안이 갖는 신도로서의 지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병도 선생이 “계룡산의 지가 일

승람』의 기록에서 계룡산 천도가 좌절된 원인을 풍수적 요인이 아닌, “조운의 길이 멀다하여 그만 두었다(漕運路遠而罷之)”³⁹⁾고 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듬해 태조 3년 한양에의 천도문제를 결단하기 위하여 역시 현장에 출동하여 논란하는 과정에서 한양이 송도보다 못하며 몇 가지 단점이 언급되자 태조가

“송경인들 어찌 단점이 없겠는가,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만한 곳이다. 특히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사망의 거리도 고르니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태조실록』 6, 태조 3년 8월 경진)

라고 하여, 국토의 중심적 위치, 조운의 편의성 등 지리적 이점을 들어 한양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신도안의 경우 이같은 지리적 결점 때문에 천도지로서의 고수가 불가능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40) 결국 태조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한양이 천도지로 확정되고(3년 8월), 9월 1일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고 신도 건설을 즉각 시행한 다음 곧 이어 10월 25일 개경을 출발, 28일 한양에 도착함으로써 천도를 실현하였다.

- 태조 3년의 한양 천도는 여말의 한양 천도론, 그리고 태조 원년의 한양천도 시도와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 사이 태조 2년의 계룡산 신도안 천도 계획은 앞 뒤가 연결되지 않는 매우 돌출적인 해프닝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일 1393년의 계룡산 천도 시도가 없었다면 한양에의 천도 또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조정 대신들이 근본적으로 조속한 천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건설 후천도라는 원칙론으로 시일을 끌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의 중앙을 벗어나 수륙의 교통까지도 불편한 말하자면 실제의 인문지리상으로 보아 일국의 수도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당초부터 이미 인식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천도지로 부각된 것은 풍수지리적 길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병도, pp.400-401)

39) 『신증동국여지승람』 18, 연산현 산천 계룡산조

40) 우왕 4년(1378) 北蘇(峽溪)에 대한 천도 논의에서도 이 지역의 역시 지리적 편재성, 조운의 불통 등이 문제되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고려사』 133, 우왕 4년 11월)

다. 그러나 계룡산 신도안에의 천도 포기는 정부 대신들로 하여금 신도안 대신 가까운 한양에의 천도에 쉽게 동의하게 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장지연은 태조 3년의 한양 천도 결정이 천도에 부정적이었던 개국공신 천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태조, ‘양자간 절충의 산물’이라 하였다. 그리고 정도전 등 개국 공신세력은 한양에의 천도에 동의하는 한편 한양 도성 건설의 실제적 추진 작업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⁴¹⁾ 즉 신도안의 천도 계획은 한양 천도의 조기 확정에 지렛대의 역할로 작용하였던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 신도안 천도계획의 역사적 의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한말의 천도설과 신도안

- 이중환(1690-1752)은 『택리지』에서 신도안에 대하여 “계룡산 남쪽마음은 조선 건국 초기에 도움으로 정하려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다”⁴²⁾고 하고, 아울러 계룡산의 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산모양은 반드시 수려한 돌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도 또한 맑다. 또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가 되어야 큰 힘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 네 곳이 있다. 개성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진잠의 계룡산, 문화의 구월산이다. 계룡산은 웅장한 것은 오관산보다 못하고 수려한 것은 삼각산보다 못하다. 전면에 또 안수가 적고 다만 금강 한줄기가 산을 둘러 돌았을 뿐이다. 무릇 회룡고조라는 산세는 본디 힘이 적다. 까닭에 중국 금릉을 보더라도 매양 한편의 패자(覇者) 노릇하는 고장으로 되었을 뿐이다. 계룡산 남쪽 골은 한양과 개성에 견주어서 기세가 훨씬 떨어진다. 또 판국 안에 평지가 적고 동남쪽이 널따랗게 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줄기가 멀고 골이 깊어 정기를 함축하였다. 판국 안 서북쪽에 있는 용연(龍淵)은 매우 깊고 또

41) 장지연, 앞의 논문, pp.29-30

42)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크다. 그 물이 넘쳐서 큰 시내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성과 한양에도 없는 것이다. (『택리지』 복거총론, 산수)

- 이에 의하면 계룡산 신도안은 나름대로 좋은 풍수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려 조선조의 도읍이었던 개성이나 한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신도안이 천도론으로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정감록』 등에서 정씨왕조의 도읍으로 계룡산이 언급되면서이다. 이에 의하여 특히 신도안을 둘러싼 풍수 도참적 논의가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감록』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조 15년(1739) 경이며 처음 서북지방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정감록』에서는 과거 조선왕조의 국도로 정해졌던 신도안에 대하여

송도 5백년에 이씨가 나라를 빼앗아 한양에 천도하였다. 한양은 4백년에 정씨가 국권을 빼앗아 계룡산에 도읍한다. 신도는 산천이 풍부하고 조야(朝野)가 넓고 백성을 다스림에 모두 순(順)하여 8백년 도읍의 땅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 또한 계룡산에 도읍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룡의 돌이 희어지고 초포(草浦)에 배가 다니면 대소의 중화(中華)가 모두 망할 것이다. 한양 이씨는 3백년이요, 만약 조금 운이 있다면 4백년인데, 그 후에 7갑자(甲子)에 이를 것이다.

라 하였다. 조선왕조 멸망후 정씨에 의한 8백년 도읍지라는 『정감록』의 참위적 예언은 사회적 불안 시기에 더욱 흥미하여, 조선조 말기에 있어서는 왕조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두려워한 통치권자의 관심

43) 백승중 「18세기 전반 서북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 『역사학보』 164, 1999, pp.103-106

사항으로까지 대두되었다. 대원군의 계룡산 이도설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에도 『정감록』과 유사한 언급이 보인다.

태조가 계룡산 아래 도읍을 정하고 신도를 건설하는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이곳은 鄭邑(정씨의 도읍)이요 네가 도읍할 것이 아니니 머물지 말고 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태조는 도읍을 중단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연려실기술』 1, 開國定都)

- 한말 대원군의 계룡산 이도설은 1886년(고종 23)에 동경에서 간행된 潘南 朴齊炯의 『近世朝鮮政鑑』⁴⁴⁾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또 참서에 정씨가 이씨를 대신할 것이며 공주 계룡산이 정씨의 도읍이 되리라는 이야기가 전하므로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겨 이를 압승하고자 역부를 징발하여 터를 열고 땅을 팠더니 석초가 매우 많이 나왔다 한다. 또 전하는 이야기로는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정씨의 천년지택인데 이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대원군은 그 말이 망언임을 알았으나 재정의 궁핍으로 준공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드디어 중지하였다.⁴⁵⁾
- 이에 의하면 대원군은 한때 계룡산으로 이도하기 위하여 땅을 굴착하는 등 실제 공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복궁 중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대원군으로서 새삼스럽게 계룡산에 신도읍을 건설할만한 여유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대원군이 신

44) 『近世朝鮮政鑑』은 대원군 집정 전후 대원군의 인물과 정치사의 이면을 서술한 야사로서, 저자 朴齊炯은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다가 희생된 개화파 인물 朴齊綱(경)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1886년 7월이지만 아마 1884년 12월 갑신정변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광린 「근세조선정감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국 개화사 연구』 일조각, 1977, pp.252-263

45) “우이참서 유정씨대이지조 상전공주계룡산 위정씨지도 옥이도이압승 발역부개기굴지 득석초심다 와언공중유인언 차정씨천년지택 범자필대화 대원군지기위망 이염재정케핍 난어고성 수지”

도안을 ‘개기굴지’한 것은 실제 천도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왕조의 종말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는 당시의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왕조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감록의 참언에 연결되어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왕조 말기 당시의 왕실이 계룡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입증된다. 황후 민비가 비밀리 연천봉의 등운암 옛터에 ‘압정사’를 세워 정씨의 왕기를 누르는 기원소로 삼았다는 이야기, 민비가 女官을 보내 연천봉 위의 靈泉에서 몸을 씻고 얻은 왕자가 李拓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또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과 함께 제위에 오르자 이듬해(1898) 계룡신사의 격을 올려 ‘중악단’으로 고치고 아울러 중악단 건물을 새로 위엄 있게 건립함으로써 ‘天子五嶽封’의 이념을 구현하였으며, 중악단이 위치한 신원사를 이때 새로운 제국의 신기원을 연다는 의미에서 신원사로 개명하였다는 것이다.⁴⁶⁾
- 신도안은 계룡산의 여러 산봉 남쪽의 동서 약 4km, 남북 약 3km의 분지이다. 이 지역은 과거 논산군의 두마면 석계리, 부남리, 엄사리, 용동리, 남선리 등의 지역이며 부남리의 북쪽에 대궐터로 전하는 지점이 있었고 주변에 신도 공사를 위해 옮겨놓은 석재들이 다수(115개)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 1929년(소화 4)에 제작된 신도안 지도에는 ‘시장’, ‘종로’ 및 동, 서, 북문 등이 표시되어 있다.⁴⁸⁾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계룡산전도>에는 동, 서, 북문지 이외에 남문지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舊開基時 柱礎’라 하여 건축용 석재류의 분포가 도시되어 있고 ‘舊時築溝’라 하여 1393년 건도 공사시 축석하였다는 도랑을 표시하고 있다. ⁴⁹⁾ 일

46) 村山智順『朝鮮의 風水』조선총독부(최길성 역,민음사, 1990, pp.702-703)

47) 윤용혁 「계룡산의 역사와 연혁」 『계룡산지』충청남도, 1994, p.73 및 정종수 「계룡산의 도감·풍수지리적 고찰」 『계룡산지』충청남도, 1994, 526-540 참고.

48) 이 지도는 지도를 그린 圖書人 崔在珣,, 저작 겸 발행인 李乃彦, 인쇄는 서울 소재 鮮光인쇄소, 인쇄인 李根澤 등 발행 관련 사안이 부기되어 있다. (충청남도, 『계룡산지』 1994의 화보 및 국립공주박물관 『계룡산』 2007, p.15)

49) 국립공주박물관 『계룡산』 2007, p.10. 단 이 책에서는 계룡산전도의 제작시기를 ‘조선후기’라

종의 도시 배수 시설로 생각되는 문제의 도량은 계룡대 정비 이전까지 남겨져 있었던 듯하다.⁵⁰⁾ 동서남북의 ‘문지’라 한 것은 실제의 문지라기보다는 아마 출입구적 성격을 갖는 자연지형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6. 맺 는 말

- 1393년 신도안 건도 사업은 이태조의 조급한 결정과 무리한 추진에 의존하고 있다. 당시의 개국공신들이 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천도를 하더라도 가까운 한양에의 천도론이 대세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운의 문제와 지리적 편재는 현실적으로 신도안 천도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1393년 신도안이 천도지로 갑자기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태조 이성계의 천도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원래 신왕조의 천도지로서는 한양을 대상지로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것이 반대론에 밀려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신도안이 천도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93년 신도안 천도책은 시종일관 태조 이성계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사안이다. 처음 신도안이 천도지로 거론된 데 대해서는 왕실의 태실지 탐색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태조는 즉위 이전부터 계룡산에 대한 특별한 인연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도안의 천도지로서의 부각도 처음부터 이태조의 검토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하였으나, 지도상에 ‘공주읍’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지도가 혹 일제시대 제작의 것 인지도 모르겠다. 공주읍의 등장은 1931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50) “지금에는 그곳에 단지 溝渠의 유적, 礎砌(초체)用의 석재가 무가공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이라 한 이병도 선생의 언급에 의하여 석재와 함께 溝渠의 유적이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p.399)

둘째, 신도안이 천도지로서의 문제는 풍수적 논의의 결과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실은 풍수적 논의는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실재는 천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흐름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태조에 의한 1393년의 신도 확정과 공사는 제반 여건과 반대로 인하여 좌절되었지만 이것은 이듬해 1394년 한양 천도의 재확정과 추진에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신도안 신도 공사의 추진에 의하여 천도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의 천도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현재 신도안 지역에는 공사시 운반된 대형 석재들이 모여져 있지만, 군 부대 내에 위치하여 이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의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의 특성상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제반 추진의 경과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군과의 협조 및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전제하면서 자료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잔존한 신도 공사용 석재 등의 자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옮겨져 교육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이 가능한 자료는 원래의 장소에서 옮겨진 자료에 국한될 것이다.

둘째, 신도안의 역사성과 실물 견학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자료관의 건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도안의 건설 계획 이외에 그 변천과정 및 계룡산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학습공간으로서 효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료관의 설립 전 단계에서는 국방부와의 협의 하에 궁궐터에 가까운 일정 장소를 개방하여 재이전한 석재 자료의 전시와 안내판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적인 공간을 조성한다.